

아하렌 해변과 가다랑어잡이

도카시키손의 가다랑어잡이는 메이지 36년(1906)에 시작되어 아하렌 마을에서도 왕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. 이 벽돌 구조물은 가쓰오부시 제조 공장 굴뚝의 일부가 남은 것입니다. 가다랑어를 육지로 가져와 가공한 후에 삶거나 증기를 썰어 수분을 빼거나, 장작 연기로 건조시키는 등 제조 과정에 화력이 필요해 굴뚝이 설치되었습니다. 잡은 가다랑어는 해변에 그냥 던져두면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주워 올려 공장으로 운반했다고 합니다.

태평양전쟁 뒤 아하렌 마을에서는 하루에 2~3 회 고기잡이를 나간 시기도 있었고 나아가 가쓰오부시 제조 공장도 두 군데 있었습니다. 가다랑어잡이가 번창하여 대형선으로 조업하게 되자 마을 사람들의 생활도 그에 따라 풍요로워졌습니다. 메이지 시대(1868~1912) 중순 무렵까지는 역세로 지붕을 인 집이 많았던 듯하지만 가다랑어잡이로 인해 수익이 늘어남에 따라 기와지붕 집이 많아져 가다랑어잡이와 더불어 풍요로워진 역사가 있습니다.